자신에 맞는 선곡 좋은 소리 나와

성악 초등부 김철웅 〈목포대 교수〉

무엇보다 천재성보단 노력함으로 노력보단 즐기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누구나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아울러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덧붙인다면 학생에 맞는 선곡이 중요하다. 학생의 위치보단 교사의 기준에 맞는 곡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또 가사와 느낌을 잘 전달해야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가사를 많이 읽어 그 느낌을 찾아 노래해야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바른 호흡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호흡법은 아름답고 편안한 노래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가창 지도법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갖고 있는 좋은 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곡 이해·감정 표현 돋보여

성악 중·고등부 김남경 〈송원대 교수〉

클래식 성악의 붐을 예고 하는듯 한 느낌을 가졌다. 학생 콩쿠르는 한두 명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우수자를 발견하는 기회라기보다 격상된 평준화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대회는 매우 큰 수확을 거둔 대회다.

중등부의 경우는 복식호흡을 충분하게 하는 학생이 적은 것과 곡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도 들었지만 자기 음역에 맞는 곡을 대부분 선택했고 무대 형식의 경연장에 잘 적응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고등부는 3학년의 기량 보다 1, 2학년의 기량이 돋보이는 기현상을 보였다. 곡의 이해도와 감정표현이 중등부에 비해서 월등 했으며 호흡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대부분 자기 음역과 음색에 적당한 곡목을 선택한 것은 역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공로라 할 수 있겠다.

음악적·테크닉적인 면 훌륭히 소화

피아노 초등부 황미경 〈순천대 교수〉

이번 호남예술제 초등부 지정곡은 해당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다고 생각됐지만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연주를 보여줬다.

특히 몇몇 학생들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곡의 음악적인 면과 테크닉적인 면 모두를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 장래 좋은 연주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쉬운 점도 있다. 변주곡의 경우 'Thema'와 각 변주곡 간의 템포가 너무 다르게 연주되는가 하면, 빠른 연주에만 신경쓰느라 곡의 균형을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또 선율과 화음 진행시 페달의 적절한 사용으로 레가토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곡이 연결되지 않고 끊기는 경우도 생겼다. 소나타의 경우 좀 더 정확한 리듬 표현과 양손의 균형, 내성부의 음색조절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교보다는 음악성 강조해야

피아노 중·고등부 신수경 〈전남대 교수〉

학생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고르다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곡을 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기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지역 선생님들의 지도력 또한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학생들의 수준은 예년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 아쉽다. 중등부의 경우, 기교보다는 음악성이 강조되는 곡들이 출제되어 주로 손가락 훈련 위주로 공부해온 학생들에게는 큰 도전이 됐으리라 판단된다.

고등부에서는 '브람스 소나타'를 마치 리스트처럼 외형적 화려함에 치중하여 연주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작곡가의 음악적 스타일을 이해하고 작곡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자기 소리를 잘 듣고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서 음악적으로 연주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무게감 있는 강한 톤 인상적

현악 임봉순 〈삼육대 교수〉

설레는 희망을 보았다.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론 좀 떨어진 느낌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무게감 있는 강한 톤이 인상적이었고 나이에 비해 성숙한 테크닉과 음악성이 돋보였으며 현악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무대였다.

가끔은 실력에 비해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곡을 연주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현대곡을 연주하여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었다. 경연대회는 연주자가 곡을 충분히 이해한 후 그 바탕으로 느낌과 음악적 표현을 더한다면 충분한 감동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연주자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현악계의 미래를 감히 희망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연주자들의 감동과 설렘의 무대를 보여줘 감사하다.

각 박자마다 리듬 정확하게

관악 이승호 〈서울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제 우리 한국도 세계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악기와 소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과 감사함이 나를 전율케 했다.

클래식은 각 마디마다 각 박자마다 리듬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빠른 음이 많다고 해서 박자를 벗어난다면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리듬역시 많은 학생들이 3/4 + 1/4 과 세잇단음표 등에서 정확하지 않음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스케일에는 상행과 하행이 있는데 상행할 때는 소리가 화려하게, 하행할 때는 음색을 정확히 듣고 노래를 한다면 더 좋은 소리, 더 좋은 리듬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모든 게 정확히 연주될 때 듣는 이에게 감동적인 음악이 될 것이다.

교칙본이나 스케일곡을 할 때 메트로놈 사용을 많이 할수록 좋은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호남예술제를 보며 대한민국 관악의 발전상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남평초 정돈된 화음 최고의 연주

합창 윤영문 〈광주합창연합회장〉

중창에 참가한 '꿈을 품은 메아리' 팀이 들려준 'Pie Jesu'는 잘 다듬어진 소리를 바탕으로 한 화음감 그리고 음악적인 표현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며 음악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학생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뭉클한 진한 감동이 느껴졌다.

합창경연은 남평초등학교부터 시작됐다. 미사곡인 'Sanctus'와 'Gloria'는 성인합창단이 연주하기에도 결코 쉽지 않는 수준의 곡이지만 어린 아이들의 소리로 리듬과 멜로디를 정확하게 표현했고 정돈된 화음감으로 최고의 연주를 들려줬다.

송원초등학교는 각 파트의 소리색깔이 일치하지 않았고 금부초등학교는 호흡의 문제로 에너지가 부족하여 음정이 약간 불안한 점이 아쉬웠다. 많은 학교에서 합창이 활성화되어 참가팀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연제초 관악합주 안정된 하모니

합주 배상철 〈목포대 교수〉

초등학생들의 신체 특성상 호흡이 짧아 음정들이 불안정했다. 호흡연습을 통한 음정 연습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바이올린 뮤직 스쿨 4명의 학생이 연주한 비발디곡에 눈과 귀가 뜨인다. 음정, 테크닉과 더불어 음악적 표현이 돋보였다.

송원초의 경우 합주 지도 선생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다. 현의 통일된 활쓰기와 현과 관의 음악의 조화, 취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모아 연주한 모습은 그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연제초의 관악합주는 안정된 하모니를 이뤘다. 특히 타악기와 금관악기파트 연주가 돋보였다. 초등부에 비해 발달된 신체적인 조건으로 폐활량과 호흡, 소리자체가 비교됐다.

학교마다 합주부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정서적인 생활, 인성교육, 단체생활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많은 학교가 나서 합주부를 활성화하기를 기대해본다.

고학년 작품 정형화 탈피했으면

미술 정희남 〈광주교대 교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닮게 그리려는 기술보다 자신의 주된 감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개성과 느낌이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반면, 고학년 참가자들은 3, 4학년 사춘기를 지내면서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그림이 많아지는 것 같다. 교사, 학부모, 학생 스스로 단계적 학습에 따른 관찰표현과 좋은 그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창의력보다 표현 그 자체에 매달리는 한계로 인해 개인의 재능을 표현하는 대회라는 느낌보다 누가 오랜 훈련 과정으로 능숙한 기술을 표현하는가를 겨루는 대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앞으로는 자신이 결정한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등 개성에 맞는 창의적 표현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발상의 참신함·탄탄한 문장력 훌륭

작문 이대흠 〈시인〉

호남예술제는 몇 십년간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제였다. 광주와 전남북의 예술가치고 호남예술제를 거치지 않는 이가 몇이나 될까? 작문 부문은 현대문학 작가 대부분이 호남예술제 무대를 밟았을 것이다.

호남 예술제가 몇 해 전부터 전국대회로 확대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게 작품 모집 방법인데, 작문 부문의 경우, 각 학교에서 우수 작품을 뽑아 우편으로 응모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현장 백일장 위주로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호남예술제 작문 부문이 현저하게 참여도가 낮아졌다. 이번에도 꽤 많은 학생들이 경연에 참가했지만, 폭이 넓지는 않았다. 그래도 우수한 작품은 많았다. 발상의 참신함이 돋보이는 작품도 있었고, 학생 수준의 작품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탄탄한 문장력을 선보인 작품도 있었다. 예술에 순위를 정하는 것만큼 고역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가야금·해금 외 참가자 많아져야

국악 박승희 〈전남도립국악단 지휘자〉

희망과 과제를 함께 보여준 경연이었다.

초등부 선반 사물판굿, 초등기악 설장구를 경연한 어린학생들의 경우 이번 호남예술제가 발굴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기악부의 경우 가야금 외에 5명의 해금전공 참가자가 참가하여 단조로움을 덜어준 반면 가야금, 해금 이외의 전공악기(피리, 대금, 거문고, 아쟁) 참가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술제가 지속적으로 호남 문화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앞으로는 호남권 각 예술 고등학교를 통해 전공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전통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등부 살풀이춤 기량 눈길

한국무용 김미숙 〈조선대 교수〉

이번 무용콩쿠르의 수준은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다. 초등부는 기능이 우수한 참가자가 많아 고무적이었으나 주제와 상관 없이 동작만 연결하여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던 점은 아쉬웠다. 하지만 초등부 기량이 우수하다는 것은 미래 이 지역 무용계의 매우 큰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중등부의 살풀이춤은 호흡과 기교, 멋과 한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가장 어려운 전통무용인데 그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등부에서는 창작무용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작품과 의상을 구성하고 무용수도 그 작품과 혼연일체가 돼 한국창작 무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인상적이었다. 특히 처용무 탈을 쓴 고등부 남학생 작품은 아이디어가 좋았고 기능 또한 뛰어났다.

드라마틱한 표현·테크닉 눈길

현대무용 임지형 〈조선대 교수〉

호남예술제는 지방무용의 대중화 발전에 기여하였고, 그리고, 무용예술의 정체성과 비전, 초석이 될 인재들의 경향을 진단하는 한축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올해 현대무용 참가자 수는 적었지만, 명쾌하고 탄성적, 세련된 움직임과 넘치는 에너지의 깔끔하고 드라마틱한 표현과 테크닉을 보여준 열정의 무대였다.

아쉽게도 대중들은 순수예술에서 현대무용은 난해한 무용, 이해하기가 어려운 무용이라고 표현한다. 현대무용같은 순수 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대중의 안목이 필수적이고 작품의 의도를 분석하면 훨씬 큰 감동을 느낄수 있다고 본다.

현재 무용 전공 청소년들이 서울지역 대학으로만 진학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 인구감소와 맞물려 현재 이 지역 청소년의 무용 전공자가 자동 감소되고 있는 상황은 아쉽다.

기본기·테크닉 좀더 보완해야

발레 박경숙 〈광주여대 교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호남예술제는 우리 호남의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경연 무대이다.

이런 지위와 평가에 걸맞게 재능 있는 미래의 무용가들이 각자의 꿈과 희망을 담아 열정을 빛낸 올해의 무대도 탄성과 아쉬움이 공존하며 마감되었다.

특히 발레 부문은 현저히 향상된 체격 조건, 세련된 의상과 장신구 등이 돋보인 무대였다.

반면 탄탄한 기본기가 연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품 선택, 턴 아웃과 포인트 웍이 결여된 동작수행, 작품에서 요구되는 표현력과 음악성 등이 좀 더 보완된다면 보다 발전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무용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자유스러운 음악 감성표현 중요

실용음악 배창희 〈남부대 교수〉

실용음악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참가자가 늘어 실용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 연주 수준 또한 전년에 비교 했을 때 보다 많이 좋아졌다.

경연참가자 대부분이 악기 연주였는데 악기 연주는 많은 시간을 연습해야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완성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저학년들도 연습한 기간을 감안한다면 결코 뒤떨어지는 실력은 아니다.

모든 음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실용음악은 자유스러운 음악이며 그래서 무엇보다 감성적인 표현이 중요하다. 그 감성적 표현에는 정답도 없다. 단지 연주자와 듣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점을 생각 하면서 연주한다면 모두들 훌륭한 연주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중등부 기발한 아이디어 즐거워

만화·일러스트 양세혁 〈조선대 교수〉

'작품의 완성도와 개성', 주제 해석의 '독창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위의 기준에 고르게 부합하는 수작들이다. 중등부 작품 심사는 정말 즐거웠다. 숙련되지는 않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였기 때문인데, 아직 형식의 틀을 갖추지 못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고등부 작품은 세련미와 완성도가 훨씬 우수했으며, 주제 해석에 대한 전략과 개성 있는 그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많은 고민 끝에 대상은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정말 좋은 그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좋은 그림은 잘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리는 사람의 진심과 그림을 그리는 순간의 즐거움을 관객이 공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